

# 새로운 대중남미 경제·통상정책 방향

崔 龍 鎭\*

## 1.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성과

지난 9월 2일부터 16일까지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자격으로 과테말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페루 등 중남미 5개국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각국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개최, 8개의 경제관련협정 체결 임석, 교민 리셉션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특히, 중미 5개국과는 합동정상회담 및 개별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민간경제협력위원회에 참석하여 각국의 경제인을 상대로 경제협력방안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

한편, 대통령을 수행한 외무부 장관과 통상산업부 장관은 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통상산업부 장관의 경우 9개국 13명의 통상, 산업, 자원 관련 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통상현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지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는 최초이며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정상외교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까지 실행된 것으로서 우리 국력의 신장과 높아진 위상이 순방활동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또한, 대통령 순방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중남미시장 진출이 보다 가속화될 것임은 물론, 우리의 정치, 외교, 경제, 문화분야의 활동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세계화하는 큰 틀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우리경제가 선진국형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중남미시장과의 교류·협력이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중남미 순방활동을 통해 거둔 경제·통상측면에서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적절한 시기에 중남미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협력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외채위기와 경기침체로 「잃어버린 80년대」를 넘어서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경제개발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파트너로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협력의지를 적극적으로 과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혁·개방정책으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남미 정부 및 경제계 지도자들 사이에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유망잠재시장으로서의 중남미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우리의 관심과

\* 通商産業部 美洲通商擔當官室 事務官

진출노력이 미흡했던 중남미시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진출노력과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관심은 30억달러에 달하는 우리기업의 대형 합작투자 또는 개발 프로젝트 참여 확정 또는 계획 발표를 통해 실천의지로 뒷받침되고 있다.

셋째, 정부 및 업계가 중남미 주요국의 현지 방문을 통해 함께 이해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넷째로는 '93년도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96년의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중남미와의 협력강화로 지역별 협력체제를 완성하고 환태평양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그야말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협력체제를 완성하게 되었다.

## 2. 새로이 다가온 거대한 잠재시장, 중남미

중남미는 인구 4억 5천만명의 거대한 잠재시장이며 주요자원의 안정적 공급처로서 우리의 경제·통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협력대상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른바 80년대의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에서 벗어나 연평균 3.5%의 실질성장을 달성하면서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중 초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외채위기 등 경제운영의 실패사례로 기억되는 중남미가 이제 새로운 발전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남미 경제가 80년대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남미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

〈표 1〉 중남미지역의 경제통합체 현황

통합체명	회원국(수)	협정 발효일	인구 (94, 백만명)	GDP (94, 십억달러)	교역규모 (94, 십억달러)
MERCOSUR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4개국)	95.1	200.6	765.0	121.1 (59.1)
ANCOM (안데안공동시장)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5개국)	95.1	98.2	189.3	60.3 (25.5)
CACM (중미공동시장)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파나마(6개국)	93.1	28.8	28.5	15.3 (9.9)
CARICOM (카리브공동시장)	카리브 도서국(13개국)	93.1	5.6	12.7	8.4 (4.6)
칠레	칠레	95.1	13.8	47.0	23.0 (11.5)
중남미 전체	33개국	—	453.6	8,720.8	377.8 (197.2)

주 : · 중남미는 쿠바를 제외함(쿠바지표 : 인구 10.9백만명, 수출 17억달러, 수입 23억달러)  
· 교역규모중 ( )는 수입액임.

자료 : UN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 95), IMF 분기별 통계(95. 12)

※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멕시코와 FTA 체결국 : 칠레, 코스타리카,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와 FTA 체결국 :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MERCOSUR

화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안정화, 민영화, 규제완화, 무역자유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화정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수입자유화는 중남미의 가장 중요한 정책변화이며 경제개혁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개방정책과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90년대에 들어 연평균 15% 이상의 상품수입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등 수입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도 대폭 개방되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중남미가 새로운 투자유망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MERCOSUR(남미공동시장), AN-COM(안데안공동시장), CACM(중미공동시장), CARICOM(카리브공동시장) 등 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통합의 추진으로 역내 경제가 활성화되고 역내 교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3. 한·중남미 경제·통상관계 현황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간의 교역은 우리의 주력시장 변화에 따라 부침은 있었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64년 우리의 총수출 1억달러중 중남미 수출은 30만달러로 0.3%를 점유하였으나 '95년에는 총수출 1,251억달러중 73.7억달러로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는 '64년 총수입 404백만달러중 1.5백만달러로 0.4%에서 '95년에는 총수입 1,351억달러중 39.6억달러로 2.9%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95년도 우리와 중남미 국가간의 총교역 규모는 114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대중남미 무역수지는 '87년에 흑자로 전환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총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90년 이후 무역수지 악화방지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은 가전제품, 섬유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수출상품 구조가 단순하고 소비재 완제품 위주의 수

〈표 2〉 한·중남미 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64	1977	1988	1991	1994	1995	1996.8
○수 출							
-전 체	11.9	10,046	60,696	71,870	96,013	125,058	85,005
-대 중 남 미	0.3	177	1,600	2,879	6,430	7,370	5,525
(비중)	(0.3)	(1.8)	(2.6)	(4.0)	(6.7)	(5.9)	(6.5)
○수 입							
-전 체	404	10,881	51,811	81,525	102,348	135,119	98,423
-대 중 남 미	1.5	90	1,442	2,298	3,280	3,964	2,949
(비중)	(0.4)	(0.8)	(2.8)	(2.8)	(3.2)	(2.9)	(3.0)
○무 역 수 지							
-전 체	-285	-765	8,885	-9,655	-6,355	-10,061	-13,418
-대 중 남 미	-1.2	87	158	581	3,150	3,406	2,576

자료 : 통상산업부

출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은 광산물, 농산물 및 가공 원자재 수입의 보완시장 성격으로 인해 증감이 반복되기는 하나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의 대중남미 투자는 무역규모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96년 6월말 현재 잔존투자기준으로 건수로는 252건으로 총 해외투자중 4.2%, 금액기준으로는 382백만달러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대중남미 투자동향

('96년 6월 현재)		(단위 : 건, 백만달러)	
구	분	건 수	금 액
전 체	총 투 자	6,537	14,087
	잔 존 투 자	5,937	12,122
대 중 남 미 (비중, %)	총 투 자	300(4.6)	512(3.6)
	잔 존 투 자	252(4.2)	382(3.2)

자료 : 한국은행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의 특징을 보면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중미 및 카리브 지역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은 저임을 활용하여 대미 우회수출을 위한 소규모 섬유봉제업, 비제조업분야는 아르헨티나, 파나마 등의 원양어업을 위주로 한 수산업 투자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전자업계를 중심으로 멕시코, 브라질 등에 복합 전자제품 생산, 브라질에 자동차 공장 설치 등 첨단기술분야로 진출하고 있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대통령 순방으로 30억달러 상당의 신규투자 진출이 계획되고 있다.

그 외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96년 9월 에콰도르의 15백만달러 규모의 전

전자 교환기(TDX) 수출에 지원된 것이 유일하며, 우리상품 수입자금으로 활용되는 전대자금은 중남미지역에 총 251백만달러의 여신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대중남미 민간협력체로는 8개국과 경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정부간 채널로는 8개국과 공동위원회 또는 경제공동위원회 형태로 설립되어 있으나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거나 장기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4. 대중남미 경제·통상정책의 방향

중남미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략은 일방적인 수출증진 또는 투자진출에 두기보다는 “협력관계” 설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중남미 국가의 오랜 기간에 걸친 보호주의적 수입대체산업화정책에 의한 폐쇄적 경제개발 경험, 급격한 경제개혁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실업증대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 외국자본에 대한 거부감 등 중남미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경제적 이익의 증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발경험 및 기술의 이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중남미 국가의 경제개발 및 성장지원을 동시에 추구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호혜적 경제협력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대중남미 경제·통상정책의 방향을 ① 중남미 진출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② 통상·산업협력활동 강화, ③ 정부의 통상교섭활동 강화 및 우리기업의 진출노력 지원, ④ 지역경제통합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방안과 ⑤ 경제협력지원체제의 구축 및 활용 등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남미 진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 시장규모, 진출용이성, 주변지역에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남미 국가를 전략적 관점에서 분류하여 한정된 통상자원을 집중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통상산업부에서는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중남미 국가를 성장시장(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잠재시장(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으로 분류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진출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상무관 파견, 무역관 증원 및 재배치, 사절단 파견, 전시회 참가 등 가용한 통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급성장하는 중남미 자체시장 수요의 확대에 부응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체계적인 마케팅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별 시장 및 소비자 특성에 맞는 수출상품 개발 및 상품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전시회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시장개척활동과 더불어 단순상품 수출확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지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대중남미 투자확대 및 진출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중남미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SOC 확충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시설재 및 자본재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코자 한다.

둘째로는, 중남미 국가와 통상 및 산업기술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무역·산업협력위원회”를 설

치,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대통령 중남미 순방시 통상산업부와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페루의 관련 부처간에 합의한 대로 금년말 이내에 무역·산업협력위원회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중 1차회의를 갖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양국의 관계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부문 및 정부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매년 당사국에서 교대로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 기능은 업계의 관심사항 확인 및 영업상 장애요인 개선, 양국 시장에 대한 주요 정보의 상호교류, 무역사절단·전시회·세미나 등 무역증진 프로그램 개발, 차원협력을 포함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셋째, 우리기업의 진출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통상교섭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남미 국가의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증대로 인해 관세인상, 반덤핑 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규제조치가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각 국가의 통상현안에 대한 양자 및 다자차원의 해결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남미 국가의 경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각 국별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사증면제협정 등 각종 경제활동과 관련된 협정을 조기에 체결토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및 영업장애요인을 상무관, 무역관 등 현지 통상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적극 수렴토록 하여 향후 양자협의를 이룰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지역경제통합체 및 국제기구를 통

한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전 미주지역을 통합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등장에 대비하여 기존의 중남미 역내경제통합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미주시장에 대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각각의 지역협력체의 핵심주도국가와의 협력증진을 통해 중남미의 지역주의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한 멕시코, 칠레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의 APEC 가입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협력 지원체제의 정립 및 이의 활용방안이다.

지역주의 동향, 수입규제 움직임, 통상마찰 등 중남미지역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진출비전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공관, 무역관, 지상사 등 가용한 정보채널의 동원과 수집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배포를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각 국별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정비, 조직화하여 주변국 진출 및 국가간 사업의 정보교류체계를 마련하고, 민간경협위를 활용한 업계간의 자율적 조정능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브라질(44천명), 아르헨티나(31천명), 파라과이(10천명) 등 중남미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9만명이 넘는 우리 교민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현지 고등교육을 받은 1.5세대 및 2세대들이 많아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중남미지역에 대한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협력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별로 적합한 문화, 예술, 체육, 학술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증진을 병행하는 범정부적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 5. 우리 업계의 대응방향

이러한 정부의 통상정책의 효과적 수행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업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업계는 중남미 진출시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고 산업별로 분산시켜 한 지역의 일시적 사정 악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국내외 투자를 연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산업의 공동화를 회피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철저한 현지화전략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리한 단기적 경영전략을 지양하고, 현지 지역사회의 문화, 사회관습에 대한 이해 및 교육을 통해 노사마찰을 예방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국기업이라는 이미지 구축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는 국내기업간의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는 등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관련업계간의 자율적 조정능력이 요청되고 있다.